

제2의 드루킹 막아라... 아웃링크 도입 법안 발의 쇄도

아웃링크 도입·기사선별 금지 등 인터넷뉴스사업자 영향력 줄이기 뉴스댓글 3개 제한 개편안도 발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제2의 드루킹을 막기 위한 관련 법안 발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드러난 이후 현재까지 신문법과 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총 13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의 주된 요구는 아웃링크 도입, 기사 선별·배열 금지,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언론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 제2의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13개 중 4개의 법안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사가 제공되도록 해야한다’는 아웃링크

〈지난달 13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이후 나온 법안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발의 일자	발의 의원(정당)	개정 법안	주요 내용
5월1일	이언주의원 등 10인(바른미래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아웃링크 제공, 기사 선별 및 배열 순위 조작 금지, 실검 순위 및 연관 검색어 제공 금지
4월30일	박대출의원 등 12인(자유한국당)		기사와 댓글에 대한 순위, 등급 부여 등으로 서열화하는 ‘랭킹뉴스’ 서비스 금지
4월23일	송석준의원 등 25인(자유한국당)		아웃링크 제공, 기사 배열 금지, 원칙 준수, 내용 수정 금지
4월19일	이은재의원 등 14인(자유한국당)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지시·명령·조합 방법 공개 통한 공정성 제고
4월4일	박성중의원 등 11인(자유한국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웃링크 제공, 기사 편집·배열 금지, 내용 수정 금지
5월1일	신용현의원 등 11인(바른미래당)		정보의 검색순위와 노출 빈도 등 차별적 대우 금지
4월30일	신상진의원 등 10인(자유한국당)		아웃링크 제공, 댓글 금지
4월25일	이언주의원 등 10인(바른미래당)		모니터링·본인확인 조치 실시, 검색순위·조회수·추천수 조작 시 처벌
4월24일	오세정의원 등 14인(바른미래당)		여론 조작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나 조작 프로그램 사용 시 처벌
4월24일	송희경의원 등 10인(자유한국당)		매크로 등 여론조작 방치한 포털에 과태료 부과
4월23일	김성태의원 등 13인(자유한국당)		댓글 조작 시 처벌, 조작자와 함께 배후조사자도 처벌, 포털에 댓글조작 방지 의무 부과
4월23일	박완수의원 등 10인(자유한국당)		매크로 등 조작행위 금지, 포털에 조작 방지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부과
4월19일	박대출의원 등 16인(자유한국당)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해 여론조작 등 부정한 행위 시 처벌

크의 내용을 담았다. 뉴스서비스사업자가 인링크를 통해 기사를 제공할 경우 댓글과 추천수 등을 통한 순위 매기기가 이뤄져 여론 조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현재 뉴스 유통은 인링크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링크는 네이버에서 뉴스 검색 시 네이버 사이트 안에서 기사를 보는 방

식이다. 이를 통해 댓글 달기와 댓글에 대한 공감·비공감 표시, 기사에 대한 반응 표현 등이 이뤄진다. 아웃링크는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의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이다. 구글 등 해외 주요 포털은 아웃링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아웃링크는 인링크에 비해 댓글과 순위 조작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사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사 배열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지난 19일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최근 일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기사배열의 순서를 임의로 재배열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배열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뿐만 아니라 기사배열에 관한 프로그램에서의 지시·명령 조합방법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은 24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매크로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드루킹 사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하며 논란의 중심이 된 네이버도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5일, 24시간 동안 하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하는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 앞에서도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구서훈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보험사 해외점포 적자... 손실실 2320만 불

(작년)

전년 4710만 달러보다 손실폭 줄어 보험영업 실적 개선·투자이익 증가

보험사들의 해외점포가 여전히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개 보험사의 해외점포 42개는 지난해 2320만 달러의 손실실을 시현했다.

보험영업 실적 개선과 투자이익 증가 등으로 2016년 4710만 달러 손실보다는 적자폭이 크게 줄었지만 적자가 지속됐다.

국가별로는 베트남,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순이익을 냈지만 미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손실이 컸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은 손실실 30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실적이 개선된 반면 투자업 순이익은 전년 대비 10만 달러 감소

한 750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해외점포 총자산은 88억86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22.2% 증가했다.

부채는 55억4100만 달러, 자본은 33억4500만 달러로 전년 말 대비 각각 27.4% 14.4% 늘었다. 보험업 점포의 영업 확대로 책임준비금이 증가했고, 신규 점포 진출과 기존 점포의 유상증자 등도 있었다.

국가별 자산규모는 중국이 55억 36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3억38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국내 보험시장 포화와 경쟁 심화로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 점을 감안해 현지 금융감독당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보험사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

〈보험사 해외점포 손익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16년(A)	17년(B)	증감(B-A)	증감률	
보험업	보험영업이익	△239.0	△226.2	12.8	적자축소
	투자영업이익	189.5	237.2	47.7	25.2%
	영업외손익	△20.9	△35.6	△14.7	적자심화
	당기순이익(a)	△77.9	△30.7	47.2	적자축소
투자업	당기순이익(b)	7.6	7.5	△0.1	△1.3%
	전체 당기순이익(a+b)	△70.3	△23.2	47.1	적자축소

5월 수도권 아파트 분양대전... 지방선거 전 내집마련 해볼까?

5월 아파트 분양이 봇물을 이룬다. 분양이 물리는 이유는 건설사들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월드컵 축구 등으로 시기 조절이에 나선 때문이다.

2일 부동산114 에 따르면 5월 전국 분양물량은 74곳, 6만2258가구 규모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2.6배 가량 많은 수치다. 이 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가구 수는 3만1601가구다. 대부분 수도권(서울

·경기·인천) 물량이다.

오는 6월에는 6·13지방 선거 및 러시아 월드컵으로 홍보효과가 떨어진다. 또한 불확실성과 양극화로 인한 변수도 많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반기 분양물량의 대부분이 이달 물리기 때문에 수요자들은 청약시장을 주목해볼 만하다”고 조언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 군포시 금정동

보령제약부지에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금정역’ 72~84㎡, 아파트 843가구와 23~84㎡, 오피스텔 639실 총 1482가구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초역세권 단지로 2층 데크로 역과 직접 연결된다. 또한 오는 2019년 1호선 금정역 급행열차 정차역으로 공사가 완료된다. 단지 외곽을 따라 안양천과 산본천이 흐르고 있고, 도

남북 화해무드... 6월 증시 큰장 온다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증시전망

비핵화·경제제재 해제가 큰 기회

남북 정상회담을 호재로 주식시장에도 장기 관점에서 훈풍이 예상된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이달 중 큰 상승세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및 북한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지면 국내 증시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5월 추정 코스피밴드를 2430~2590포인트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이와 비슷한 2430~2580포인트를 제시했다. 5월에도 큰 폭의 하락은 물론 상승세도 없을 것이라 판단이다.

KB증권 이은택 투자전략팀장은 “1,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며 “남북정상회담 자체보다는 북미정상회담과 이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경협 수혜주로 떠오른 건설, 철강금속 업종의 경우 차별화된 주가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지나치게 상승한 곳은 주가가 부담스런 수준이란 분석이 나온다.

NH투자증권 오태동 투자전략팀장은

〈북한의 정상회담 일정〉

/자료=KB증권

회담	날짜	논의제기	예상외제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2월 10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방북을 제안하며 논의됨.	비핵화,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
북미정상회담	5월말~6월초	3월 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보안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힘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한반도 종전선언
북중정상회담	6월 중	3월 25~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방문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을 제안하며 논의됨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한반도 종전선언, 우방 관계 복원

“독일에서는 통일전 기대감으로 건설, 철강·금속, 공업 업종이 상승했으나 통일 후에는 기업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이들 모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경협 시 실제 수혜로 이어지기 보다는 투자 비용이 확대될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남북경협 수혜주 가운데 과거 순이익 기준으로 주가수익비율(PE) 100배가 넘는 종목이 다수”라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는데 기업 이익실현이 장기화되면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6월에 예정된 북중 정상회담까지 마무리 된 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가 이뤄진다면 국내 증시에 기회요인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은택 투자전략팀장은 “대북 이슈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쉽지 않다”면서도 “북·미,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5~6월 회담 이후를 염두에 두고 5월을 주식 매수 시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가 ‘휴전 체제’에서 ‘종전 체제’로 전환되고 나면 북한은 현 정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개혁·개방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이 베트남과 같은 개방경제 노선을 따를 경우 각종 투자가 물리면서 국내 주요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태동 투자전략팀장은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GDP)은 854달러로 방글라데시 수준”이라며 “장기적으로 음식료, 필수소비, 여행·레저 확대 등은 남북경협을 위한 수혜업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보권에 약 36만 3600여㎡ 규모의 호계근린공원이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도 누릴 수 있다.

GS건설은 경기도 안양시 소곡지구 주택재개발하는 ‘안양씨엘포레자이’ 39~100㎡ 1394가구 중 7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명화역이 단지에서 약 1km 거리에 있으며 명화역에서 신도림역 20분대, 서울역 40분대 도달이 가능하다. 단지가 위치한 안양시 만안구의 경우 안양시의 ‘제 2의 안양 부흥’이라는

비전과 목표 아래 대규모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현대건설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1-1재정비촉진구역에서 ‘힐스테이트 신촌’ 37~119㎡ 1226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345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대우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대우평지구에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 59~149㎡ 2355가구를 분양한다. 주거 및 상업, 교통, 업무, 문화 등을 연계 개발하는 대규모 주거상업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이규성 기자 peace@